명상은 죽음보다 큰 위험

| **오쇼** | **손민규** 옮김 |

자기를 지키려 하면 신성神性을 잃을 것이요. 신성을 드러내려 하면 자아를 잃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쿤 달리니 에너지를 깨우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면 그 위험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면 쿤달리니 에너지를 깨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엔 분명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어쩌면 그대가 '삶'이라고 간주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쿤달리니가 깨어난 후에 그대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우리의 인간관계, 감정, 살아가는 세계 등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 변화는 실로 대단한 위험을 내포한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로 변형을 시도하는 석탄은 석탄으로써의 자신을 죽여야 한다. 거기에 위험이 있다. 그것은 석탄에게 큰 위험이다.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 석탄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 그래야 다이아몬드가 탄생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총체적으로 볼 때 다른 점이 없다. 기본적으로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동일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변형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차이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하는 석탄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 석탄은 커다란 위험과 직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도 위험에 직면한다. 그는 인간으로써의 자신을 죽여야 한다.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은 커다란 위험과 맞부딪친다. 강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도망칠 길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위험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사라짐을 의미한

다. 사라질 준비가 된 사람, 죽을 각오가 된 사람만이 신을 향해 여행할 수 있다. 죽음도 명상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한다. 죽음은 다만 우리로부터 하나의 육체를 빼앗고 다른 육체와 연결시킬 뿐이다. 죽음에 의해서도 그대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옷을 바꿔 입을 뿐이다. 그대는 똑같은 상태로 남는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위험은 아니다.

명상은 죽음보다 훨씬 큰 위험이다. 죽음이 그대의 옷을 벗겨 가는데 그치는 반면, 명상은 그대로부터 그대 자신을 벗겨가기 때문이다. 명상은 완벽한 죽음이다. 앎에 이른 자들은 명상을 완벽한 죽음, 전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했다. 명상 안에서는 겉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

바다가 되기를 염원하는 강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사실, 바다와 만난다 해도 강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오히려 강은 바다로 성장한다. 석탄 또한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오히려 다이아몬드로 성장한다.

그러나 석탄이 석탄으로써의 자신을 고집한다면 자신을 잃어버리는데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물이 강물이기를 고집한다면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힘들다. 강물은 바다와 만남으로써 드넓은 바다가 된다. 그러나 강물이 이것을 어찌 알겠는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명상과 관련하여 볼 때, 인간 또한 똑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질문자는 '그렇게 분명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여기, 내가 말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하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에 가득 찬 삶을 살수록 우리는 더 생생하게 살 수 있다. 두려

워할수록 우리는 더 시체에 가깝게 된다. 사실, 죽은 사람은 어떠한 위험과도 직면할 필요가 없다. 죽은 자들이 직면한 위험은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더 강렬하게 죽음과 만날 수 있다.

여기 바윗돌 하나가 있고 그 옆에 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는 중이라고 하자. 바위는 꽃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넌 참 어리석구나.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피어나려는 것이지? 넌 황혼녘이 되기도 전에 지고 말텐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냐?"

꽃으로 피어난다는 것은 실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바위에게는 아무 위험도 없다. 꽃은 저녁이 되면 시들겠지만 바위는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바위는 그런 위험을 맞을 필요가 없다. 바위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이다. 더 많이 살아있을수록 위험도 그만큼 크다. 살아있는 정도와 위험의 정도는 비 한다. 생생한 삶으로 고동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명상은 가장 큰 모험이다. 명상은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명상은 삶의 절정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질문자는 묻는다.

"그렇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대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거기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대답이다. 위험이 없는 곳으로는 가지 말라. 절대 그런 곳으로는 가지 말라. 거기에는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 가라. 위험이 있는 곳에는 삶의 가능성 또한 풍부하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안전을 구한다. 안전하지 못한 곳이

더 많이 살아 있을수록 위험도 그만큼 크다. 살아있는 정도와
위험의 정도는 비례한다. 생생한 삶으로 고동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명상은 가장 큰 모험이다.
명상은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되면 무서워하면서 도망친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삶을 잃어버린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보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삶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삶을 아끼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위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안다. 명상의 세계에는 실로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상은 가장 큰 모험이다. 사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도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다. 달나라에 가는 것 또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최근에 우주비행사 몇 명이 사라진 일이 있었다. 물론 위험이 크긴 하지만 그것은 육체에 국한되는 일이다. 죽는다 해도 기껏해야 육체가 바뀌는 것 밖에 더 있는가? 명상의 위험은 달나라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왜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종류의 두려움 뒤에는 무지가 숨어있다. 우리는 종말을 맞거나 완전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보존하려고 온갖 수단을 강구한다.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쓴다. 위험에 대비해 높은 성벽을 쌓고 모든 입구를 봉쇄한다.

어떤 왕이 커다란 성을 지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출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었다. 사전에 모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야 적이 들어올 통로가 없을 테니까. 그러므로 그 성은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무덤에 가까웠다. 왕은 그 하나의 문마저 믿지 못했다. 혹시 그 문으로 자객이 침투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왕은 그 문 주위에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철통같은 경비를 세웠다.

이웃 나라의 왕이 이 완벽할 정도로 안전한 성에 대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방비태세가 되어있는 성을 보고는 감탄하여 자기도 똑같은 성을 지어야겠다고 말했다.

마침내 이웃나라의 왕이 떠날 때가 되었다. 그는 성 밖으로 나온 후에도 그토록 아름답고 안전한 성을 지은 것에 대해 경탄의 말을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성을 갖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윽고 그들이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그들이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이웃 나라 왕의 마차가 막 움직이려는 찰라, 길옆에 앉아 있던 파키르[1]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왕이 파키르에게 물었다.

"무엄한 놈! 감히 왕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다니! 냉큼 그 이유를 말하라!"

파키르가 말했다.

"폐하, 제가 보기에 이 성에는 한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이 건설되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앉아서 이 말을 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성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 결점이 무엇이냐?"

---

1) 파키르(fakir) : 회교나 힌두교의 탁발승.

파키르가 말했다.

"폐하는 안전을 고려하여 문을 하나 밖에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경비가 삼엄하기 때문에 그 문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죽음은 쉽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 들어가셔서 이 문도 완벽하게 봉쇄하 시오. 그러면 절대 안전할 겁니다. 출입구가 없으니 죽음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왕이 말했다.

"미친놈이로구나! 네 말대로 하면 죽음이 성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문마저 봉쇄되면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집은 곧 나의 무덤이 될 것이다."

파키르가 말했다.

"문 하나만 제외하면 이 집은 이미 무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마저 봉해버리면 완벽한 무덤이 되리라는 것은 폐하께서도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파키르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도 한 때 밀폐된 집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는 밀폐된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의 문까지 봉해버리면 이 성이 무덤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폐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살던 집의 벽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지금은 드넓은 하늘을 지붕 삼아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곳에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무런 방어벽도 없이 완전히 트인 곳에는 삶이 충만할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위험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한 삶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거기엔 위험이 있다. 이것이 그대가 위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이다. 위험은 일종의 도전이다. 그대는 이 도전에 응답해야 한다. 위험을 맞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석탄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강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지, 바다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다. 위험에 처하는 것은 그대의 에고이지, 그대 안의 신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대는 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신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대 자신을 버려야 한다.

누군가 예수에게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대 자신을 버리면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

"자기를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구하려는 자는 영원히 잃을 것이다."(끝)

• 이 글은 『생명의 에너지를 일깨워라 I』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오쇼** | 그의 가르침은 삶의 의미를 묻는 개인적인 질문에서부터 현대사회가 직면한 정치 사회적 문제들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오쇼의 책들은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청중들과 나눈 즉석문답을 오디오와 비디오로 기록하여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이에 대해 오쇼는 '이것을 명심하라. 지금 나는 그대들만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런던의 〈선데이 타임즈〉는 20세기를 일군 1,000명의 주요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오쇼를 선정했으며, 미국의 작가 탐 로빈스Tom Robbins는 오쇼를 예수 이후에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가했다. 인도의 〈선데이 미드데이〉는 인도의 운명을 바꾼 열 명의 위인들 중에 간디, 네루, 붓다와 더불어 오쇼를 선정했다.
오쇼는 자신의 일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새로운 인류를 '조르바 붓다Zorba the Buddha'로 규정했는데, 이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세속적인 기

뽐과 고타마 붓다의 평온함이 조화를 이룬 인간상을 말한다.
그의 강의와 명상법들은 시간을 초월한 지혜와 함께, 현대 과학기술이 지닌 잠재성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오쇼는 날로 가속화되는 현대인의 삶에 적합한 명상법을 고안해 냄으로써, 내적 변형이라는 분야에 혁명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독창적인 액티브 명상법Active Meditation들은 우선적으로 신체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역자 | **손민규**Swami Prem Yojan(쁘렘 요잔) | 오쇼의 제자로 입문한 후 20여 년 동안 인도를 오가며 여러 스승들을 만나 교류했다. 영혼의 테러리스트로 알려진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를 만나 큰 감화를 받았고, 오쇼의 법맥을 이은 끼란지와 12년 동안 친교를 나누며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명상서적 전문 번역가로 일하면서 50여 종의 책을 한국에 번역 소개했다. 현재 오쇼와 끼란지의 가르침에 대해 공부하는 오쇼코리아(oshokorea.com)를 이끌고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생명의 에너지를 일깨워라 1

초월과 변형을 위한 오쇼의 쿤달리니 이야기

오쇼 지음 | **손민규** 옮김 | 출판사 **젠토피아** | 정가 27,000원

초월과 변형을 위한 오쇼의 쿤달리니 이야기 『생명의 에너지를 일깨워라』 제1권. 레블출판사에서 출간한 영문판 『In Search of The Miraculous』를 기본으로 삼았다. 명상에 관심을 가진 분들 대부분이 신비체험을 원하고, 이 책은 바로 그 신비체험에 관한 내용이다. 인간의 의식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류에게 도움을 준 오쇼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